

# 무관심 속에 멎드는 책들

관리소홀로 도서 훼손율 높아... 유통경로 단순화 시급

우리 출판계의 '아킬레스건'인 도서반품문제  
제가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  
특히 반품되는 도서들의 10% 가량이 유통  
과정에서 훼손되고 있어 출판유통의 난맥상  
을 증언하고 있다. 도매상부도·매출격감과  
더불어 복잡한 유통경로와 관리소홀로 멀쩡  
한 책들이 고스란히 폐기처분당하고 있다.

구제금융 이전부터 매출대비 반품률은  
30%를 상회하고 있었다. 정기간행물·학습  
교재·무협소설 등을 포함하면 심지어 50~  
60%가 반품되는 현실이다. 이처럼 반품률  
이 높은 것은 출판사의 과잉생산과 밀어내  
기식 영업, 유통거래의 중복성 때문이라고  
지적돼왔다.

## 복잡한 유통경로 반품 부채질

극히 미약하긴 하지만 책이 운반과정에서  
파손돼 서가에 미처 꽂혀보기도 전에 되돌  
아오는 경우도 있다. 복잡한 유통경로가 이  
를 부채질하고 있다. 대부분의 출판사와 도  
매상들은 소매상으로 배분할 때 낙원사·북  
뱅크·날개·한길유통 등 배송업체와 천일화  
물, 철도 등을 이용한다. 특히 지방의 경우는  
주로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춘 낙원사와 북  
뱅크, 천일화물, 철도를 통해 운송한다. 배분  
대행업체라도 지방영업망이 없는 경우는 다  
른 배분업체에 의뢰하기도 한다. 따라서 출  
판사에서 책이 배분되고 다시 반품으로 돌  
아오기까지는 최소한 6~8회의 운송과정을  
거쳐야 한다.

운송기간은 업체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보  
통 신간이 서점에 도착하기까지 1~4일 정  
도 걸린다. 반품도서의 경우 서울지역은 당  
일로 되돌려보내지만 지방은 최소 1~2주일  
이 소요되기도 한다. 지방은 일정한 분량이  
쌓인 후에 운송되기 때문이다. 또한 반품창  
고에서 며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.

반품에 대한 처리과정과 비용은 유통기구  
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. 배송업체들은 대  
부분 창고대행까지 맡는다. 별도의 창고공간  
을 임대하지 않는 출판사의 반품은 도착하  
자마자 바로 돌려보낸다. 반품 운송비는 시  
내는 무료이며 천일화물이나 철도를 통해  
지방에서 올라온 반품은 박스당(대체로 30  
kg 내외) 2천원,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돌아  
온 지방화물은 박스당 1천원의 운송료를 받

는다. 반품운송비용은 철도를 제외하고 일부  
어음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.

별도의 창고를 위탁하고 있는 출판사의  
반품이 입고되면 먼저 매절도서와 위탁도서  
를 구분한 후 반품서를 기재하고 중별 부수  
를 체크한다. 중별로 분류한 후 파손시킬 것  
과 재생이 가능한 책들을 구분해 규격별로  
포장한다. 재입고가 가능한 책은 반품창고나  
출고창고에 별도로 보관한다. 반품도서 관  
리 수수료는 1종(권)당 월 3천원, 반품의 재생  
비용은 권당 80원, 그리고 인지·피지·판권  
부착 수수료는 권당 30원으로 계산된다.

한국출판유통·한국출판협동조합 등의 도  
매기구는 배분대행사·천일화물·철도화물을  
통해 들어온 반품도서를 출판사에 바로 돌려  
보내거나 창고에 재입고시킨다. 이때 반품 관  
리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. 날개나 한국출  
판유통은 출고창고와 반품창고가 분리되어  
있어 입출고 관리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.

도서배분 전문업체를 제외하고 도서운송  
의 80%를 담당하는 천일화물은 주로 전집  
물·참고서·정기간행물 등을 운송한다. 대략  
24시간 이내에 발송이 되지만 반품의 경우  
는 지방영업소에서 매월 2~3회에 걸쳐 수  
거해 서울로 올려보낸다. 화물운송료는 서울  
에서 지방 영업소까지 대략 박스당 2000원  
~2500원, 지방영업소에서 서점까지 배송비  
로 1000원~1500원의 비용이 발생해 총  
3000원~4000원이 든다. 반품비용도 이에  
준한다. 때로는 화주의 요청에 의해 창고에  
보관하는 경우 1일에 박스당 130원, 5일 이  
후부터는 2배가 추가된다. 철도화물은 10kg  
을 기본으로 800원~1250원, 5kg당 200원  
~300원이 추가된다.

대부분의 서점은 반품도서를 이미 상품가  
치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 
포장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. 서점에  
서 반품도서를 포장할 때는 신문지로 위아  
래를 덮은 후 끈으로 묶으며 정기화물이나  
철도를 이용할 경우는 박스로 포장한다. 이  
에 따라 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찌그러지  
거나 표지 등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비밀비  
재하다.

## 반품도서의 재생 현실적으로 어려워

배분대행업체나 도매상들은 대부분 반품

대부분 서점은  
반품도서의 포장을  
허술히 하게 된다.  
신문지로 위아래를  
덮은 후 끈으로 묶거나  
박스로 포장한다.  
짐이 이동하는  
과정에서 찌그러지거나  
파손되는 경우가  
비밀비재하다.

박스로 포장한 반품도서는  
정기화물이나 철도 등을 통해  
운송된다. 이 과정에서 책이  
훼손되는 경우는 흔하다.



을 재생하는 역할도 맡는다. 배분대행업체에  
서는 반품재생비용을 권당 80원으로 책정해  
놓았다. 그러나 재생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.  
반품된 도서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  
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도매상이나 서점에서  
스탬프·ISBN·재고관리표 등 비표를 부착  
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.  
재생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고작 표백제  
로 도장을 지우거나 표지를 닦아내고, 종이  
를 절단하는 선에서 그친다. 다시 출고된다  
고 할지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서점에서  
는 달가와할 리 없다.

극히 일부의 상황이지만 반품창고의 관리  
가 허술해 비·바람·먼지·오물 등에 의해  
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. 몇몇 반품도서들  
은 출판사 자체가 사라져버려 창고공간에서  
흉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기도 하다. 때로  
는 운반노동자들이 책을 부주의하게 다뤄  
때가 묻거나 파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.

서점의 관리소홀이나 유통과정상의 실수  
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고스란히 출판사의  
부담으로 돌아온다. 출판계 구조상 출판사가  
서점이나 유통업자들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 
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한 소형 출판사  
의 경우 지난달 창고배분대행비 64만원 중  
에서 반품관리비가 6만원으로 10%를 차지  
했다.

도서반품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다양  
하다. 출판영업인협의회 이동호 부회장은

“출판사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해  
야 한다. 출판사·도매상의 전문화·특성화  
전략이 필요할 때”라고 지적한다. 출판유통  
에서 위탁거래방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  
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  
망한다.

유통업체는 유통경로의 단순화와 표준화  
를 선결과제로 꼽았다. 한국출판협동조합의  
성의현 회장은 “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거  
래를 표준화해야 반품문제가 해결될 수 있  
을 것”이라고 전한다. 날개의 조노현 대표는  
“출판사들의 밀어내기식 영업을 반품의 악  
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다. 출판  
사의 과감한 체질개선이 없으면 반품률은  
줄지 않을 것”이라고 지적한다.

출판사 대표들은 도매상의 영업마인드 자  
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. 지호의 장인  
용 대표는 “도매상 부도 이후 출고량을 줄  
이면서 반품률이 5~6% 줄고 있다. 현재로  
서는 출고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”이라며  
“동일한 책을 동시에 반품·주문하는 등 주  
먹구구식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반품창고와  
출고창고를 일원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한다.

도서반품은 지식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 
암적인 존재다. 출판사·유통기구 등 출판관  
계자들의 빠져서 반성과 체질개선이 없는  
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. 거시적 관점에서  
유통기구의 전산화·현대화에 지혜를 모  
아야 할 때다. — 박천홍 기자